

금요 양성 2025년 5월 9일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성 프란시스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아주 헌신적인 충심을 가지셨었는데 그 이유는 육화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녀의 모범때문이었다. 그리하여 그는 성모님을 수도회의 수호자, 즉 프란치스칸 전 가족의 수호자로 세우셨다.

“이 단순한 칭호들의 모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역할을 묘사하는 인사 기도문이다. 문헌 전통은 이 기도문과 바로 뒤이어 나오는 덕들에게 바치는 인사(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이다)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덕에 응답하는 모든 크리스천의 모범으로 동정 마리아를 제시하고 있다.”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a-salutation-of-the-blessed-virgin-mary/179-fa-ed-1-page-163>

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(번역출처: 프란치스칸 원천 1,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74-75쪽)

¹귀부인이요, 거룩한 여왕이시여,

인사드리나이다.

거룩한 마리아시여,

당신은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시나이다.

²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뽑으시어

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과

보호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.

³당신안에는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였으며

지금도 가득하시나이다.

⁴하느님의 궁전이시요, 인사드리나이다!

하느님의 장막이시여, 인사드리나이다!

하느님의 집이시요, 인사드리나이다!

⁵하느님의 의복이시여, 인사드리나이다!

하느님의 여종이시여, 인사드리나이다!

하느님의 어머니시요, 인사드리나이다!

⁶그리고 거룩한 모든 덕들이여,

당신들에게도 인사드리나이다.

성령의 은총과 비주심으로,
믿는 이들의 마음에 당신들이 쏟아부어지면,
하느님의 불충한 이가 충실한 이 되리이다.^b

위의 마리아에 대해 기술된 것을 읽으시오. 두 번째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단어와 문장을 잘 생각하며 읽으시오.

- 복되신 어머니를 묘사하기 위해 성 프란시스가 사용했던 구절들을 봤을 때 사부님이 성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?
- 깊이 감동을 준 단어나 구절 4개를 선택하고 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.
- 이 복되신 성모님께 드리는 인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 방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?
- 당신의 매일 기도 생활에 복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포함시키고 있습니까? 매일 성모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?
- 개인적인 도전: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모님에 대한 찬미/찬양 글을 쓸 수 있을까요?